

# 설영우·이태석 '펼펼' 홍명보호 풀백 '든든'



설영우



이태석

## 북중미 월드컵 준비 '청신호'

2026 북중미 월드컵 최종명단 발표를 불과 보름여 앞두고 홍명보호의 '키 포지션'인 측면 수비수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의 풀백 설영우는 27일 소속팀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의 2025-2026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골 맛을 봤다.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한 설영우는 팀이 2-0으로 앞서던 후반 42분 즈베즈다의 3-0 승리에 췌기를 바는 골을 터뜨렸다. 중원에서 티미 막스 옐스니크가 넘겨준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땅볼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수비수 돌이 달라붙었지만 간결한 움직임으로 각도를 만들어내고 슈팅했다.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동시에 묻어나는 골 장면이었다.

즈베즈다가 이날 승리로 리그 9연패를 확정해 설영우의 활약은 더욱 빛났다.

2024년 여름 즈베즈다에 입단하며 유럽 무대에 처음 선 설영우는 거친 몸싸움과 빠른 공수 전환의 동유럽 축구에 완전히 적응하며 팀의 핵심 풀백으로 자리

## 세르비아 리그 맹활약 설영우

팀 내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 오스트리아서 뛰는 이태석도 풀타임 소화... 3골 4도움 호조 최종 승선경쟁 갈수록 불붙어

매기했다. 올 시즌엔 정규리그 33경기 중 29경기에 선발로 나섰고, 그중 25경기에선 풀타임을 소화했다.

특히 즈베즈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과 유로파리그(UEL)를 뛰며 '큰 무대 경험'까지 채웠다.

홍명보호에서 설영우의 전술적 가치는 높다.

왼쪽과 오른쪽 수비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인 데다, 측면 플레이에 더해 안쪽으로 들어와 상대 위협지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움직임도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영우는 유럽 진출 전 K리그 울산 HD에서 홍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두 차례 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여전히 설영우는 대표팀에서 홍 감독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수 중 하나다.

왼쪽 수비수 이태석도 소속팀 아우스트리아 빈(오스트리아)에서 같은 날 공격포인트를 작성했다.

슈투름 그라츠와의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2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9분 오른쪽에서 올린 '백배 코너킥'으로 팀 플라보티치의 선제 헤더 골을 도왔다.

이태석은 지난해 여름 오스트리아 무대에 진출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설영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경기에 풀타임을 뛰면서 리그에서만 3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둘의 활약상에 홍 감독은 미소 짓는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에 대비해 포백과 스리백 카드를 모두 준비하고 있다. 측면 수비수들이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야 두 카드를 효과적으로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다.

홍명보호 최종 승선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설영우, 이태석에 더해 김문환, 이광재(이상 대전하나시티즌), 옌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 등이 측면 수비수 자리를 두고 경쟁해왔다.

여기에 스리백의 왕백으로 양현준(셀틱), 엄지성(스완지시티)도 될 수 있다.

글 사진=연합뉴스

## 한 타석도 못 서보고... 송성문, 대주자로 한번 뛰고 빅리그서 다시 강등 '눈물'

미국프로야구에 진출한 송성문(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사진)이 메이저리그(MLB)에서 방망이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28일(한국 시간) 송성문을 트리플A 팀 엘패소 치와와스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송성문은 2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를 앞두고 처음 메이저리그로 승격됐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열린 경기였기에 '27번째 선수'(특별 추가 로스터) 규정에 따라 빅리그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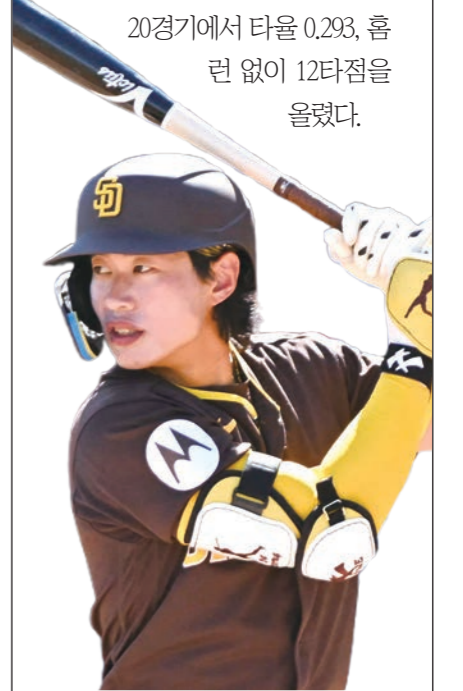
첫날 경기에서 벤치만 지킨 송성문은 27일 경기에서는 8회초 대주자로 나서 그라운드를 밟았다.

하지만 샌디에이고가 해외 경기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로스터가 26명으로 줄자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게 됐다.

한국인 29번째 메이저리거가 됐지만 타석에는 한 번도 서지 못하고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게 아쉽다.

지난해 12월 샌디에이고와 4년 총액 1500만 달러에 계약한 송성문은 스프링캠프 도중 복사근을 다쳐 개막 로스터에서 제외됐다.

부상에서 회복돼 트리플A 엘패소에서 시즌을 시작한 송성문은 20경기에서 타율 0.293, 홈런 없이 12타점을 올렸다.



## 43세 고효준 "베테랑의 품격 보여주겠다"

두산 코치직 고사... 울산 현역 합류 "후배에 먼저 다가가는 멘토 될 것"



당장 은퇴해도 축하받으면서 마운드를 떠날 나이와 경력이지만 고효준(43·울산 웨일즈·사진)의 꿈은 여전히 KBO리그 무대다.

고효준은 27일 울산 문수야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KBO리그에서 베테랑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다"며 "전체적인 몸 상태도 좋고 퓨처스(2군)리그와 KBO리그 무대는 다르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2002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한 고효준은 여러 팀을 거치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베테랑 좌완 볼펜 투수다.

마지막 팀 두산 베어스에서 지난해 코치직을 제안받았지만, 그는 거절하고 프로야구 시민구단 울산에 입단했다.

현역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결정이었다.

고효준은 최근 KBO리그와 퓨처스리그를 통틀어 최고령 승리 기록(만 43세 2개월 3일)을 세우는 등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28일 기준 현재 12경기에 등판해 1승 4홀드 평균자책점 1.98을 기록 중이다.

그는 "현재 최고 구속은 트랙맨 기준 시속 148km까지 나온다"며 "다른 팀들의 1군에서 다친 선수가 많아 투수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다. 제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계약 조건상 내일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 전화 안 받으면 문자라도 부탁드리고, 모르는 번호도 잘 받겠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현역 최고령인 고효준은 팀 내 어린 선수들에게 멘토 같은 존재다.

그는 "후배들이 다가가 많이 물어본다.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

하려고 한다. 선배가 먼저 다가가는 게 맞다"며 "코칭스태프와 얘기하기엔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 저는 형처럼 다가가고 많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27일 울산에 입단한 '빅리거 출신' 최지만의 선택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고효준은 "냉정하게 따지면 솔직히 의외라고 많이 생각했다. 최지만의 경력을 보면 자신감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울산에 입단하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그래서 최지만의 울산 합류가 참 대단하다. 박수쳐주고 싶고, 엄지척해 주고 싶다"고 했다.

*Inhancer Plus*<sup>™</sup>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브로멜라인 + 레시틴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